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2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4월 13일 (음력 3월 16일) 목요일

공천 후유증…민주당 내홍

"당원명부 유출·여론조사 불합리" 반발

탈락 20여명 무효투쟁…하루만에 재심도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한 민주당이 심각한 공천 후유증에 휘말리고 있다. 공천에 탈락한 당원들이 '공천무효'를 주장하며 비상 투쟁기구 결성에 나선데다 공천자가 발표된 지 단 하루만에 재심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향옥 해남군수 예비후보와 김경남 화순군 광역의원 예비후보, 남미례 화순군 기초의원 예비후보를 비롯 민주당 공천 탈락자 20여명과 방대영 전 광주시의원 등은 12일 광주시 금남로 삼우빌딩에서 '당내 민주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공천 무효 및 당 비상기구 설치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공천은 후원당원 명단 사전 유출과 불합리한 여론조사, 특별당비 파문 등으로 원천 무효"라며 정식 후보 등록일인 5월 15일~16일 전까지 공천이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버스 10여대로 상경, 중앙당사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종호, 고판술, 김일중, 김관선, 강성만씨 등 민주당 신안군수 공천 신청자 5명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신안군수 후보 여론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사후 검증성을 무시하고 당초 후보들이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실시를 촉구했다.

김충석 여수시장도 이날 "민주당 공직특위의 공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천자가 발표된 지 단 하루만에 재심에 들어가는 경우도 나왔다. 민주당 재심특위는 여론조사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광주·전남지역 4~5명의 광역의원 후보 교체는 물론 전남지역 2~3개 기초단체장 후보 교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상당한 공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체 대상 후보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재심특위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가 재미 없어서…"

토익만점 중학생 개학 한달만에 그만둬

형도 "적성 안맞다" 과학고 자퇴

"개성 못살리는 교육현실 아쉬워"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각각 990점 만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광주의 두 형제〈본보 2월7일자 8면〉가 잇따라 학교를 그만뒀다.'영어천재' 박새벽(16)·성준(13) 형제는 현재 집에서 홀로 대학입시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 박재규(46·변호사)씨는 "두 아들 모두가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해 처음엔 솔직히 고민이 많았다"며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 새벽이 = 새벽이는 지난해 8월 과학고를 자퇴하고 이어 10월에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얻은 뒤 현재 집과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내 독서실을 오가며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다.

새벽이는 당초 '적성이나 능력이 인문·사회계열에 맞다'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부모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앞세워 광주과학고에 진학했지만 결국 적성에 맞지 않다며 본인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 박씨는 "새벽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등 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되풀이되는 학교생활에 재미를 못 느꼈으며, 뒤늦게 자신의 적성이 인문계에 맞다고 생각해 자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새벽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했으나 자퇴한 뒤 거의 매일 한 시간 정도 테니스를 치며 몸 관리를 제대로 하는 등 건강과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며 "고등학교 2학년 나이지만 내년에 서울대 법대나 사회과학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생 성준이 = 성준이는 지난 3월 학교를 그만뒀다. 광주 동명중 2년으로 진급한지 한 달도 못돼 유예원을 제출한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서다. 성준이의 학교 성적은 전교에서 20등 안팎으로 비교적 상위급. 하지만 틀에 박힌 학교 생활에 맴돌다 보니 하고픈 테니스며 바이올린 교습도 여의치 않아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박씨는 "성준이는 평소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스스로 생물학자나 의사,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세운 뒤 '논리력을 요구하는 수학이 암기 위주인 영어보다 오히려 재미있다'며 현재 수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준이는 하루 일정을 본인 스스로 짜, 오전부터 오후 2~3시까지는 보통 중학생처럼 영어·수학·일반 교과를 공부하고, 오후 3~6시까지 테니스 및 바이올린 교습, 오후 7시 이후 읽고 싶은 책읽기 등으로 보내고 있다.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나 = 박씨는 "학교교육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꼬집었다.

그는 또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역시, 그 본질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경쟁을 펼쳐 좋은 대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아직껏 학연이나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두 아들 모두 세상을 어렴풋이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믿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황태종기자 hwangtae@

큰 사랑 받고 갑니다

▶관련기사 8면

지난 3일 고국을 방문했던 미 NFL(미국프로풋볼리그) MVP 하인스워드와 어머니 김영희씨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N-POOL 중앙일보 =김태성 기자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확정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2006 광주비엔날레 공식 포스터를 확정, 12일 공개했다. 포스터는 팽창과 융합, 네트워크와 이동, 뿌리와 길, 음과 양 등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 12개의 막대로 표현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社告

제16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17일 오후6시 무등파크호텔 4층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 강연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7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16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이 강사로 나서 '2006년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게 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 여러분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4월 17일(월) 오후 6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2006년 노동정책 방향
- 강사 :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영화감독 신상옥씨 별세

영화감독 신상옥 씨가 11일 오후 11시39분에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0세. 〈관련기사 20면〉

신 감독은 2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이 악화돼 보름 전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다 이날 타계했다. 유족으로는 50~70년대 톱배우로 활동했던 부인 최은희씨와 정균(영화감독·상균(미국 거주)·명희·승리씨 등 2남 2녀가 있다. 발인은 15일 오전. 02-2072-2091. /연합뉴스